

보도자료 배포: 2026년 9월 9일(수) 보도 시점: 배포 즉시	 저널리즘대학원 문의 ☎ 043-649-7346 저널리즘연구소 연구교수 곽영신
---	--

제목 :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, 「기후위기-에너지전환 팩트체크 취재보도 지원 사업」 2026년 하반기 공모

- 시민들의 기후위기 및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인식 제고와 국내 언론사의 관련 현안 취재 역량 강화 위해 팩트체크 보도 지원
- 2026년 9월~2027년 2월 운영되는 하반기 지원사업에 4~5개 지원작 선정
- 에너지 전환 주제 장려, 데이터 저널리즘 분야 적극 지원
- 선정작에 최대 2,000만 원 지급
- 지원서 마감 2026년 10월 8일(목) 오후 6시

미래 언론인과 현직 언론인의 교육을 주 목적으로 하는 국내 유일의 언론대학원인 세명대학교 저널리즘대학원(원장 안수찬)이 시민들과 언론의 기후위기 문제,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「기후위기-에너지전환 팩트체크 취재보도 지원사업」 2026년 하반기 공모를 진행한다.

- 2026년 하반기 「기후위기-에너지전환 팩트체크 취재보도 지원사업」의 기획안 공모는 2026년 9월 9일부터 시작하여 10월 8일 오후 6시 마감한다. 사업 기간은 선정 이후 2027년 2월 초까지다.
- 「기후위기-에너지전환 팩트체크 취재보도 지원사업」에 선정된 기획안에는 1편당 최대 2,000만 원이 지원된다. 공모된 기획안 중 4~5편이 선정될 예정이다. 사업 첫 해인 2025년에는 상·하반기 총 6개 언론사의 기획안이 선정됐고, 올 2026년 상반기에는 총 5개 언론사가 선정돼 지원을 받았다.

- 이번 사업은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에너지 전환 관련 주제에 중점을 둔 기획안 제출을 장려한다.
- 또한 기후위기와 에너지전환 관련 팩트체킹에서 대규모 데이터 분석과 해설능력이 시민의 이해를 돕는 질 높은 보도 생산에 도움이 되는 점을 고려해 데이터저널리즘 분야의 기획을 적극 지원한다.
-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는 언론중재법 제2조 1항의 “언론”에 해당하는 방송, 신문, 잡지 등 정기간행물,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이다.
-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을 위해 기획안 심사는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이 언론계와 과학계의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된 ‘기후위기-에너지전환 팩트체킹 취재보도 지원사업 심사위원회’가 맡는다.
- 「기후위기-에너지전환 팩트체킹 취재보도 지원사업」에 선정된 언론사는 지원서에 제시한 기획방향에 따라 자사 매체에 3편 이상의 기사를 보도해야 한다. 자사 보도 이후 세명대학교 저널리즘대학원이 운영하는 비영리 독립 매체 <단비뉴스>에 단비팩트체크 기사로 3편 이상 재구성하여 게재하여야 한다. 게시 횟수, 게시할 때 지켜야 할 의무, 사업비 사용 조건 등은 첨부된 ‘기후위기-에너지전환 팩트체킹 취재보도 지원사업 지원조건’, ‘기후위기-에너지전환 팩트체킹 취재보도 지원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’에서 확인할 수 있다.
- 기획안은 국제팩트체킹연맹(International Fact Checking Network)이 제시한 불편부당성과 투명성의 준칙을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. 「기후위기-에너지전환 팩트체킹 취재보도 지원사업」에 선정된 기사들은 어떠한 정치적 이해에도 기울지 않고,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사실을 취재하며, 증거가 이끄는 대로 결론을 도출하는 팩트체크의 기본 원칙을 지키는 내용이어야 한다.
-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의 <단비뉴스>는 2026년 7월 국제팩트체킹연맹

(IFCN)의 인증을 받은 사실검증기관이다. 현재 IFCN의 인증기관은 <단비뉴스>를 포함해 국내에 두 개 언론사다. 각 사의 보도는 추후 <단비뉴스>에도 게시되는 만큼, 「기후위기-에너지전환 팩트체크 취재보도 지원사업」에 선정된 언론사와 기자들에게도 제작과 보도 과정에서 IFCN의 원칙강령을 준수해줄 것을 요청한다.

-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은 2008년 개원 이래 기후위기와 환경, 에너지 전환 문제를 한국 언론이 주목해야 할 핵심 의제의 하나로 상정하고 <단비뉴스>에 꾸준히 보도해 왔다. 2026년 8월 31일에는 기후위기 및 에너지 전환에 관한 국내외 우수보도와 최신 지식·정보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‘기후아고라’를 개설해 언론과 전문가, 시민이 모여 기후위기 대응방안을 토론하고 대안을 찾는 공론장을 운영하고 있다. 「기후위기-에너지전환 팩트체크 취재보도 지원사업」에 선정되어 결과물로 나온 기사들은 향후 ‘기후아고라’에도 게시된다.

■ 지원서 제출 마감 시간 및 제출 방법

- 지원서 제출 마감: 2026년 10월 8일(목) 오후 6시
- 지원서 제출: journal@semyung.ac.kr (온라인 접수만 받음)
- ※지원서 제출 시 메일 제목에 「기후위기-에너지전환 팩트체크 취재
보도 지원사업」 지원서라고 명기

■ 사업 설명 간담회 안내

- 일시 및 장소: 9월 17일(목) 낮 12시 광화문 달개비
- 참석신청 링크: <https://forms.gle/sKJDRizHQMQLbKKg7>
- ※ 9월 14일(월) 16시까지 위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십시오. 장소 관계상 참석인원을 선착순 20명으로 제한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인원이 채워지면 개별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.

■ 문의

곽영신 연구교수 (세명대학교 저널리즘연구소)

kys01@semyung.ac.kr / 010-9109-8504